



▲지난 2011년 5월 27일 대동제 마지막 날, 잉글리시 라운지 파티를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2012년 상반기 '끝판왕' 대동제 23~25일 개최

40돌 맞이한 대동제, 작년 보다 다채로운 행사 마련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대동제가 열린다. 김기홍(정통 3총학생회장)은 "이번 축제에는 BB탄 사격, 펀치, 오락실, 성상탑 프로그램, 트럼프와 닥트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했다. 우리학교 개교 40주년을 맞아, 안내부스를 설치해 40주년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제, 학과 수업에 지친 학우들을 위해 많은 행사를 준비했다. 1년에 한번 있는 축제인 만큼 잠시 시간을 내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 성북구 주민들로 구성된 '비틀기 봉사대'가 이번 축제에 함께 참여한다.

축제 첫 날인 23일 개막식에서 국민대 '용두리 응원단'이 공연을 하고, 밴드 공연팀 '리트르'의 공연과 낙산가요제도 함께 열린다.

24일에는 단과대 학생회자들이 물에 적서 열린 웃음 뽀리입는 시합을 하는 아이스월드, 화장 등 패션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바꿔주는 메이크오

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선언, '매드맥스'가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5일은 흑인음악 악동아리 트라이엑스, 교내 밴드 왕리학교 개교 40주년을 맞아, 안내부스를 설치해 40주년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제, 학과 수업에 지친 학우들을 위해 많은 행사를 준비했다. 1년에 한번 있는 축제인 만큼 잠시 시간을 내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각종 부스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학생회에서 발급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을 받은 학생들은 중앙무대에 설치된 화과 음모함에 수명한 쿠폰을 넣으면 된다. 가장 많은 쿠폰이 모인 화과를 선정해 상품을 지급하고, 쿠폰을 제출한 학생들 중 1~2명을 뽑아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초대가수로는 가수 김장훈씨가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기홍 총학생회장은 "대부분의 부스가 오후 6시에 종료할 예정이지만, 부스운영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WOORI' 총학생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짜'는 미래관 잉글리시 라운지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열린다. 짝에서 연결되는 커플에게는 영화예매권 혹은 커피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성대 방송국(이하 HBS)은 제37회 낙산가요제를 개최한다. HBS 시상수(멀티 3) 실무국장 "낙산가요제는 한성대 재학생 뿐 아니라, 타 대학 학생도 참여하는 행사이다. 이달 5일에 예선을 거친 10팀이 100% 순수 자작곡으로 무대를 꾸며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낙산가요제는 축제 당일인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될 것이며, 교내 아나운서가 행사진행을 한다.

그는 "작년까지는 재학생만 참가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참가자격을 확대해 휴학생과 졸업생 등 20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낙산가요제는 MBC 낙산가요제(이하 나

가수를 모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이 나가수에 출연하는 가수들처럼 먼저 자신의 각오나 다짐을 보여준 후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모든 공연이 끝나면 축하 무대로 가수 정인씨의 축하공연이 이어질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상금 5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상금을 지급한다. 학생들은 HBS가 이번 축제를 위해 자체 제작한 CF와 패러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HBS 페이스북 및 낙산의 메아리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김무영(지정 3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번 동아리연합회에서는 DJ 한명을 초청해 중앙무대에서 축제의 흥을 돋운다.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열리며 24일은 힙합음악 위주로, 25일은 일렉트로닉 음악 위주로 선곡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동아리에서는 2일간 사진 전시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2일차에 중앙부스를 설치하여 락 공연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에게 "이번 축제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24~25일 2일에 걸쳐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5개국(중국, 몽골, 네팔, 일본, 말레이시아) 유학생들이 전통음식 및 주류를 판매한다. 이나래(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연구원은 "5개국 학생들이 전통음식을 입고 학생들과 같이 활영을 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통음식 부스를 이용한 학생들에게 쿠폰을 발행하는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축제에 맞춰 외국인 유학생들이 교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택견'과 일본인 유학생들이 준비한 일본전통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재학생과 유학생의 교우가 더욱더 좋아지고, 봉사활동 및 문화생활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김현성 기자 103311@hansung.ac.kr

삼 학 승

음주사고 없는 축제를 만들어가길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 매체마다 대학 축제에 대한 소식을 다루곤 한다. 작년에도 지상파 방송 9시 뉴스에 대학 축제 즐겁고 흥겨운 모두의 축제가 되지 못한 채, 지나친 음주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술이 빠지면 축제가 무슨 재미가 있냐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지 모르겠다. 물론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축제를 즐겨본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축제날 밤 토사물의 흔적과 냄새들로 더러워진 화장실을 이용하며 이맛살을 찌푸린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화장실 뿐 아니라 학교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축제는 즐거운 한마당임과 동시에 더럽고 불쾌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매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새내기 새로배움터와 대동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 두 가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학교가 가장 신경쓰는 문제 중 하나가 음주사고에 관련된 것이고,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음주사고로 발생한 환자들이 대한 정보와 대학생 음주문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제공한 적도 있고, 119나 응급환자이송단에 협력을 요청한 적도 있다. 많은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학교는 새터나 대동제 때 음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나친 음주로 몸이 상하는 사람도, 다른 이들의 주사로 불쾌감을 느끼는 것도 모두 학생들이 아닌가. 학교가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 의식 있게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다 같이 모여 즐겁고 신나는 기간인 만큼 음주를 강권하고 술잔을 돌리는 술자리 문화보다는 중간 중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주변사람들의 컨디션도 챙겨가며 즐겁게 어울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대동제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해 부스를 열기도 하고, 동아리와 학생회도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기다려온 시간인 만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축제, 신나는 한마당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길 바란다.

- 2 화장실 물카사건 결국 범인 못찾아
- 3 인사담당자들에게 '스팸'이란?
- 4 힘을 잃은 가게에 새 희망 불어넣는 미소희망봉사단
- 5 체형교정 다이어트

지면안내

학생회소식

- | | |
|---|-------------------------------------|
| 총학생회
• 대동제 행사 5/23~25일
• 클린캠페인 5/31,6/5일 | 인문대학생회
• 5/29~30일 탐구관 사진전 |
| 졸업준비위원회
• 5/21~25일 졸업앨범발행기간 | |

사 령	
임 수습기자 이진수(무역 1)	면 편집국장 오지영(매디 2)

한성대신문사 제37기 수습기자모집

기자작성?? 어렵지 않아요.
정해진 커리큘럼만 따라오시면 누구든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담받지 말고 전화주세요^^



기자혜택 개인컴퓨터, 개인책상, 개인 사물함, 원고료, 기자 활동비, 기자 인증서 발급

모집분야 학내 뉴스 및 사회/문화/기획면 취재기자 (사진촬영 가능한 자 우대)

모집대상 학부 재학생 누구나 (더 많은 한성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모집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12학번 포함 전 한성인들 모두 환영!)

접수기간 6월 15일까지

선발전형 신문사 방문 후 입사지원서 작성

문의 010-4534-8682, 02)760-4186



화장실 몰카사건 결국 범인 못찾아

안전이 최우선, 증거확보가 관건

지난 1일 낙산의 메리에게 '화장실 몰카카메라 범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친구가 진리관 화장실에서 불의를 보던 중 옆 칸에서 어떤 사람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친구의 모습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의자의 휴대전화에는 화장실에서 찍은 여성들의 사진을 비롯해 몰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고, 당황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을 지우긴 했지만, 미처 경찰이나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용의자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사건을 접한 이현정(메디2) 학생은 "수업 때문에 진리관에 갈 일이 많다. 그런데 하필 진리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소름이 끼친다. 무서워서 화장실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3일 낙산의 메리에게 '몰카 사건' 당사자의 글이 다시 올라왔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학생 지원팀에서 학교를 돌아다녔지만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당연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용의자가 내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복을 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었다."며 "당시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삭제해서 증거가 사라진 상태다. 또 우리학교 학생이라는 보장도 없어서 범인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 결과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일중 학생은 낙산의 메리에게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교내에 붙이면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신영석(시설지원팀) 팀원은 "인상적으로 미투어볼 때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학교 주변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인권 보호 상 용의자가 찍힌 영상을 공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는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홍성미(양성평등상담사) 전문위원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홍성미는 "몰카카메라 촬영을 예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몰래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먼저 안전한 상황인지 살펴야 한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범인이 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한 다음 도움을 요청해야 한

다. 무턱대고 소리를 질러 범인을 자극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홍성미 위원은 "그 다음 당황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처벌을 위해, 가능하다면 범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용서를 구한다거나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범인과 따로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며 "만약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학생지원팀이나 가까운 건물의 안내실 바로 연락해야 한다. 평소 자주 다니는 건물의 교내 연락처를 알아두면 좋다. 양성평등 상담소에서도 현재 미래관 화장실에만 임시로 설치되어있는 비상벨을 전 건물로 확대 설치 요청할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사건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평소 예민한 수위에 없어야 한다. 장기간 화장실 문이 잠겨있거나 안에서 기척이 없는 경우에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늦은 시간에는 혼자 화장실에 가지 않는 편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몰카 사건의 피해 학생은 "홍성미의 말이 너무 많다. 항상 말로만 들었던 말이 당사자가 내가 될 줄은 몰랐다. 많은 학생들이 항상 조심해서 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산학협력단' 학생들과 소통원해

이번 학기에 새로 8명의 교수들이 산학협력단에 임용되었다. 이들 교수들은 학생들과 취업 및 진로에 대하여 소통하고,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멘토가 되기를 원한다. 새로 임용된 교수들은 전직 대기업 출신 및 정부 주요부처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교수들로 창업, 마케팅, 컨설팅, 인사, 재무관리, 광고홍보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전문가들이다.

정지화(산학협력단) 교수는 "학생들은 졸업 후 20~30년 이상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할 것이다.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 또한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적성을 찾게 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손경연(산학협력단) 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3~4학년 때 취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1~2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 교수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면접 때 면접관들에게 나의 잠재성과 자신이 사회에 봉사한 것에 대하여 표현을 해야 한다."며 "특별한 스토리는 사비를 들여 다녀오는 어학연수보다는 교내외에서 실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 봉사활동

등의 경험을 의미한다. 어학연수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녀올 수 있는 것이지만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기에 의미가 더욱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학점, 토익, 자소서 만큼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활동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소서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던 지원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얼마만큼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제 성격이나 행동은 어떻게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할 때 내가 이 기업에 왜 취업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계속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학협력단 교수들과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교내 홈페이지 취업·창업공지 'TOP공지 성공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교수님 소개' 글을 클릭해, 원하는 교수님을 선택하고 이메일 및 전화로 신청 후 시간을 맞춰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산학협력단 교수들은 "많은 학생들이 우리를 찾아주어 함께 미래의 직업에 대해 적성을 찾고, 그것에 대하여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성 103311@hansung.ac.kr

간주린소식

한국어학당 전통연희교실 수료식 가져

지난 16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교내 한국어과정에 소속된 외국인 유학생 30여명이 전통연희교실 및 수료식을 가졌다.

한국어과정에 소속된 학생들은 3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10주간 택견교육을 받아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택견을 지도한 김병구(택견협회) 강사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10주간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했던 동작을 집에서든 혼자 익힐 것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주고 다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왕군홍(경영1)학생은 "처음에는 배우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몇 번 하고나니 재미를 느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유학온 그는 "중국 전통 무술인 쿵푸와 비슷해 고향생각이 났다.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26일 NOD 정기공연 진행

한성대학교 중앙댄스동아리 NOD(new face of dance)가 오는 26일 신촌에 있는 B6라운지바에서 정기공연을 한다.

이번 공연에서 출연진들은 락킹, 하우스, 힙합,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선보이며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하여 1시간30분에서 2시간정도 공연이 진행 된다.

NOD 부회장 조미현(메디3)씨는 "커피이벤트,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관객들과 댄서들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며 "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낙산극회 공연 '헤더웨이가의 유령'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정의관 소강당에서 연극동아리 낙산극회가 '헤더웨이가의 유령(원작 존 머리)'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 '헤더웨이가의 유령'은 '헤더웨이저택'을 두고 일어나는 의문의 괴기스러운 사건들이 3장에 걸쳐 일어난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독립된 여러 개의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각각 사건이 연관되어있는 유니버스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낙산극회 회장 서광택(기계3)학생은 이 공연에 대해 "이번 워크샵은 여름인 만큼 공포연극을 공연한다.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공연은 연극에 관심있는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구성된 출연진들이어서 다소 부족하지만 있을테지만 연극을 올리기에겐 연습한 신입생들의 노력을 뱉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12학년도 교직과정 심성교육 특강

오는 23일 3시에 미래관 지하 102호(ELC)에서 '2012학년도 교직과정 심성교육 특강'이 열린다.

'2012학년도 교직과정 심성교육 특강'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과 조교는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에게 심성(예절)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의 교육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특강의 취지를 밝혔다.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공문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특강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교직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도 관심이 있다면 청강이 가능하다.

'2012학년도 교직과정 심성교육 특강'을 맡은 신현석(고려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학술위원장 등을 연임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교육개혁정책』,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한국의 교원정책』,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등이 있다.

동정란

이성우(행정학과) 교수 이 교수는 지난 4월 16일부터 자유선진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한 프리마켓

예술대 대표 행사 자리매김 기대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우촌관 잔디광장에서 예술대학생회가 주최한 프리마켓이 열렸다. 이날 프리마켓에서 인디밴드 공연, 봉지카테일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프리마켓을 구경하던 경영학부의 한 학생은 "예쁜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산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특히 액세서리는 예술대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것들이라고 해서 놀랐다. 손재주가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아람(인테리어3) 예술대학생회장은 "올해 프리마켓은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썼다.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seller)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 소량으로 물건을 내놓는 경우에는 예술대학생회에서 판매대행을 맡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단대 특성상 의류나 액세서리, 팬시 제품이 많이 팔렸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손재주도 높내고 용돈도 버는 색다른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프리마켓에서는 물품 매매뿐 아니라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다.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추첨해 상품을 주기도 했고 인디밴드 '백수와 조씨', '미즈매치'가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즉석에서 제조한 봉지카테일을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있었다.

이 날 봉지카테일 증정은 시작한 지 3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다 떨어지는 등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이벤트를 요청한 한 학생은 "봉지카테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시원하고 맛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장소에 대한 불편함도 제기됐다. 이벤트를 요청한 또 다른 학생은 "우촌관 공사로 인해 잔디광장 한쪽의 출입이 통제되고 공간이 좁아져 통행하기 불편했다"며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과학대 체전과 일정이 겹쳐 정신이 없었다. 행사는 좋으나 시기가 좋지 않았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아람 예술대학생회장은 이번 프리마켓에 대해 "그동안 동아리 연합회·공과대의 현무제나 인문대의 사진전시회처럼 예술대를 대표하는 행사가 없었다. 프리마켓이 앞으로 예술대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아 각자 개성이 강한 예술대 화합도모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예술대학생회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봉지카테일을 만들고 있다.



Hansung 졸업생 찾기 캠페인 '짱가' 프로젝트...?♡♡

어디선가...누군가에...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만 주세요,
바로 달려갑니다...!! 짱가...!!

지금 혹시... 내 책상 서랍 깊숙히...아무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그리운 동문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혹시... 내 수첩 귀퉁이 어딘가에... 다급히 흘려 쓴 낯선 글씨 속에 그리운 그녀 또는 그 사람의 연락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혹시... 내 핸드폰 속에... 감히 용기내어 버튼을 누를 수조차 없는 그리운 그 시절 친구들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 추억의 한 부분을 <짱가>에게 알려만 주신다면... 어디든지 단숨에 달려가 그리운 추억 한 자락을 <한성의 울타리> 속으로 찾아 오겠습니다.

한성 졸업생 찾기 본부 짱가 프로젝트
02) 760-4261 기획전략팀/ 02) 760-4266 대화협력팀

**<졸업생 찾기>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소정의 학교 기념품을 드립니다.



인사담당자들에게 ‘스펙’ 이란?

요즘 학생들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스펙을 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학점, 토익, 자격증, 대외활동 등 학생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스펙과 인사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스펙은 과연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



▲ 구직자들이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면접을 보고 있다.

도레이 첨단소재의 인사담당자 박경진 대리는 “요즘 학생들은 하나같이 어학점수를 만들고, 자격증을 따고, 대외활동 경험을 쌓는다. 하지만 보통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회사마다 다르다. 기준치도 다르다. 토익과, 학점은 서류통과를 위한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접을 볼 때 군중 속에서 돋보이는 것과, 인사담당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한다. 그는 “인사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능력이다. 예를 들어 한자 자격증이나, 외국어 능력 및 업무에 대한 실무능력과 그 기업에 입사하려는 때 얼마나 잘 융화되는지를 중요시 한다. 각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과 기준치가 다르지만 우리 기업은 어학연수보다는 해외교환학생, 해외봉사 같은 대외활동을 한 사람은 더 선호한다”며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진자를 채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회사의 경우, 이력서와 자소서 등 인사팀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부서로 보낸다. 전공에 대한 관심, 성취, 능력 등을 실무부서 직원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에 얼마나 잘 융화 되는지, 업무에 대한 관심도, 요구하는 인재상이 모두 다르다. 또한 위기 대처능력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실무적인 능력과 성실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어학 및 자격증은 준비 하지만, 우리 기업에서는 그러한 스펙들이 선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는 이어서 “최근에 대학가에서 스펙쌓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과, 내면적인 것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성실도와, 그 사람의 교양,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을 더 강화해 자신만의 강점을 특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슨일인지 모르는데 기업에 입

사하기를 원한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간격을 좁여야 한다.

대학 입학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더 빨리 찾아야 한다. 고학년이 되어 준비하는 것 보다는 저학년부터 준비하는 것이 취업을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조용준 대리는 “신도리코는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R&D(연구개발) 부분과 영업부분이다. 일반적으로 R&D부분은 공학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 채용을 할 때에는 전공에 대한 활용도 및 관심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영업 부분은 인문 및 상경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다. 영업부분은 다양한 관심 및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또한 사업이 측면에서 시야를 보게 되면 영업을 더 잘 할 수 있다. 영업직은 사람을 상대하게 잘 대해주고,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인재가 요즘 기업에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용준 대리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인생은 짧게 보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까지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필요한 부분을 강화 시켜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이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박경진 대리는 “취업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입사 후의 행동이나 특성을 확실하게 잡아서 각자의 컨셉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 모든 기업은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가지는 인재를 원한다. 본인이 뚜렷한 성격이라 해도 일단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이 되었다면, 신입사원답게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먼저 입사한 선배들에게 꼭꼭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모든 기업이 인간적인 인재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에 입사한 후에도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인재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꿈과 노력이 없으면 직장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입사 후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언급했다.

두 멘토가 공통점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지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성 기자 103311@hansung.ac.kr

■ 등·식·주

〈등·식·주〉는 대학생에게 고충을 주는 3대 비용인 등록금, 식비, 주거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코너입니다.

‘민자 기숙사’ 너무 부담돼 기숙사 비용 월 30~40만 원 선이 적정



“예뻐고 아늑한 집에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집을 사는 건 부담되니까 전세로 살면 돼요. 서울시 평균 전세값이 2억3000만 원이니 그것만 있으면 돼요. 200만 원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모으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집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고요? 작은 거실에 지하철거면 가까우면 된다고요? 그게 2억3000만 원이예요. 2억3000만 원이 없으면 서울에서 멀어지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최효종의 말에 대학생들이 폭소를 터트렸다.

민자 기숙사란 간단히 말해 민간이나 사기업이 만드는 기숙사이다. 대학 내 민자 기숙사 유지는 2006년부터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로서 자본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15~20년 뒤 대학에 반환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시스템이다. 대학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기숙사 건립에는 손을 쓰지 않고 있다. 학생의 복지비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자 기숙사를 건립한 학교는 숭실대, 연세대, 서강대, 고려대 등이다. 2인실 기준 기숙사 비용은 ▲숭실대 125만원 ▲연세대 165만원 ▲서강대 183만원(식비포함) ▲고려대 215만원(식비포함)이다. 민자 기숙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가격이 다소 부담된다는 평이

다. 최상현(고려대 신소재공학부 1) 학생은 기숙사에 대한 의견으로 “시설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새로 생긴 ‘프린터어린’의 영향으로 기숙사의 경쟁률이 높아져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 기숙사에 더욱 투자를 해서 가격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은정(고려대 간호학과 2) 학생은 “기숙사 비용에 식비까지 포함되어 더욱 비싸게 느껴진다.”며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아도 돈이 아까워 밥을 먹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한 학생들은 기숙사 비용의 적정선을 식비를 제외하고 월 30~40만 원 선이라고 전했다.

김미희 기자 kong@hansung.ac.kr

■ 대학 옆보기

서제스터,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바꾸는 학생모임

성균관대학교는 서제스터(suggester)라는 학교운영발전제안대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제스터는 학교의 발전 원동력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모임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생활과 학사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생모임이다. 2007년도에 만들어진 서제스터는 일년에 한 번씩 구성원을 모집하고 운영해 나간다. 매년 초 명륜캠퍼스와 울전캠퍼스에서 각각 15~20명의 학생들을 선발한 후 1달간의 적응기간을 거친다. 한 조당 4~5명의 인원으로 조를 구성해 활동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동아리나 소모임과는 달리 학생처에 소속된다. 성균관대 학생지원팀 김범찬 씨는 “인원을 15~20명 정도 모집하는데 지

원자가 100명쯤 된다. 학생처에 속해 있어 확고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으며, 학생 스스로 학교를 개선해나간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제스터는 매 주 열리는 회의를 통해 학교 내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현금카드 로만 쓸 수 있었던 학생증을 체크카드 로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12학년 신입생들에게 보급한 바 있으며, 넓은 캠퍼스 인을 겹쳐서 이동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부스를 설치했다. 또한 학교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균관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 질을 높이기도 했다. 서제스터는 학교 내 불만사항을 찾

아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들을 기재한 한 장짜리 팜플렛 ‘매거진’을 발행한다. 교내에서 다양한 주제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학생들의 의견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있으며, 많은 경험을 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제스터는 교직원과 서제스터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조를 선정할 뒤 장학금을 지급해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한다. 서제스터 회장 김배옥 씨는 “학생회 측에선 행정업무가 많아 교내 불만사항을 해소해 나가기가 다소 힘들다. 하지만 서제스터는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학교 내 문제 상황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교생활을 하며 느끼는 학생들의 불편 함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제스터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제스터는 캠페인, 학교 개선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굉장히 바쁘지만 서제스터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완성해나가는 과정들로 인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며 “내가 직접 계획한 활동이 실제 행정 업무에 반영되고, 학교 내에서 생활하며 불편을 느꼈던 사항들이 개선되어 가는 모습들을 본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김현성 기자 103311@hansung.ac.kr

■ 대학언론의 눈

대학생들이여, 대학을 취업의 관문이라 생각하지 말자

‘취업을 1위’, ‘사벌·행정고시 1차 합격’ 그리고 각종 취업자 명단이 적힌 플랜카드를 우리 대학교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업과 관련된 플랜카드는 비단 우리 대학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대학에 걸쳐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이처럼 어느 순간부터 대학교 캠퍼스에 이러한 플랜카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대학교는 12년의 길고 긴 입시터널의 종지부이자 종착역이다. 힘든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대학생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모든 학생이 그럴 것이라고 일반화 할 수 없을지만 적어도 필자는 그랬고 이 글에 있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믿는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야 하루를 마감하는 지옥 같은 생활을 참았던 이유는 대학교 캠퍼스에

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잔디밭에 앉아 동그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맘껏 놀 수 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는 지난 시대의 이야기였다. 요즘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동아리도 학교 앞 술집도 아닌 바로 도서관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도 아닌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도서관이면 고학년들은 오죽할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생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교양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적성을 찾거나, 전공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가는 학생들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이 꿈이 되어가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대학교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견

문을 넓혀 가는 곳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든다. 필자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시대가 변했고 결국 최종 목적은 취업이기 때문에 학교가 취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문할 것이다. 물론 청년백수가 200만 명인 시대에 취업경쟁이 이처럼 치열한 시대에 취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기 위한 관문이 되어선 안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학년들은 교양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적성을 찾고, 전공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전공을 실릴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고학년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해야 하며 비전공 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다면 취업에 중요한 스펙과 스토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보다 강의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강의의 질을 높인다면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끝난다면 입시의 길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길고 길었던 12년 동안의 입시관문을 통과했다. 때문에 12년 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하지만 그 보상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렇지만 현실을 알기에 “나가서 놀아라” 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꿈이 공무원이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후배 A, 자신과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편입을 준비하는 동기 B를 보며 혀를 찰 때 필자는 1년 뒤 어느 대학생들과 같이 스펙과 스토리를 위해 도서관에 앉아있는 씩씩한 상상을 해본다.

영남대신문 편집국장 박준범

2012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개설 안내

1. 수강신청기간 : 2012년 5월 21일(월) 10:00 ~ 5월 25일(금) 22:00
2. 수강정정기간 : 수강신청기간과 동일
3. 신청가능학점 : 6학점(타대학 학점교류 및 E-러닝, KCU 신청학점 포함)
4. 수강료 내역 : 학점당 7만 원(이론 및 실기 구분없음)
5. 수강료 납부기간 : 2012년 6월 4일(월) 10:00 ~ 6월 8일(금) 22:00
6. 수강료 납부방법
 - ① 본교생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수강신청서를 출력하여 수강신청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기업은행(전국지점)을 통하여 입금
 - ② 타대생 - 한성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우측 메뉴 ‘타대생 수강신청 및 성적확인’에 로그인 후 수강신청서를 출력하여 수강신청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기업은행(전국지점)을 통하여 입금
7. 수강료 환불 신청기간 : 2012년 6월 11일(월) ~ 6월 13일(수) 17:00
* 학사지원팀(우촌관 종합행정실) 방문 신청
8. 수업기간 : 2012년 6월 22일(금) ~ 2012년 7월 12일(목)
* 휴강 시 보강 실시
9. 재수강
 - 교과목 코드가 같은 재수강 과목은 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 재수강 신청이 안되는 학생들은 학사지원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설 예정 과목 및 강의시간표는 학사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잃은 가게에 새 희망 불어넣는 미소희망봉사단

경영, 마케팅 등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곳



▲벽화그리기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봉사자의 모습이다.

2010년에 만들어진 미소희망봉사단은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봉사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소속의 봉사단체이다. 미소희망봉사단은 서울, 경기, 충남, 경북 등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수는 약 2천 명 정도이다.

미소희망봉사단의 수혜자는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들 중에서 본인만의 능력으로는 사업이 개선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출을 해준 지역지점 또는 기금 및 은행재단이 도

움을 제공할 수 있는 봉사단과 수혜자를 연결해주거나 직접 봉사단에 도움을 요청해서 연결이 된다. 수혜자에게는 ▲전문지식(경영·법률·세무/회계 컨설팅, 교육·훈련, 마케팅·홍보 등) ▲재능나눔(각 분야의 능력·기술·운영·영업·매출신장 등의 노하우) ▲일손지원(행사·홍보·사무·영업 지원, 기타 미소금융 수혜자가 요청하는 업무지원 및 자녀돌보기, 배달 등) ▲기타분야(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특혜)가 주어진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소속의 봉사자 김정훈

(세종대 경영 4학생은 “예전에 사업을 했는데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다. 돈을 조달하던 중 미소금융을 알게 되었고 서민들을 위한 취지가 마음에 들었다. 평소에 봉사를 원했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금융 쪽의 취업을 알아보다가 인턴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단에 참여하면서 봉사자들이 직접 컨설팅 해주는 것에 수혜자분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봉사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심지어 봉사단 홍보를 할 때 상인들이 봉사단을 대부업체로 오해하기도 한다.”며 봉사를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앞으로 미소희망봉사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직접 발로 뛰는 대외활동은 흔치 않다. 내가 했던 대외활동 중에 가장 배울 점이 많다. 곧 있으면 미소금융중앙재단 인턴 4기를 뽑는데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미소희망봉사단의 홍보담당자 이정희씨와 최지인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으로 성북동 석계역 근처의 작은 술집 ‘한잔다운’을 꼽는다. 한잔다운은 연세대 학생 네명이 힘을 합쳐 도운 업체이다. 한 달 매출액이 기껏해야 월세값도 안 되는 5~6만원을 밀들은 상태였다. 절실함과 시급함을 느낀 연세대 학생들은 이 업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단기 해결책을 구출한 뒤 대청소와 메뉴 정리부터 인테리어 개선, 지역주민과 인근 대학 홍보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하고 성실한 컨설팅 활동을 했다.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며 봉사활동을 한 것만으로도 존재감 없던 한잔다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온오프라인 홍보활동과 특색 있는 인테리어의 결과로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단골 이외의 손님들이 찾아오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이정희씨와 최지인씨는 “미소희망봉사단의 수혜자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정심이나 안타까움을 유발하지 않는다.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한 업체의 사장님들에게 간혹 봉사자들의 입장에서 봉사를 하러 나가도 어려운 분들을 도왔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에도 많은 가게가 생겨났다 또 사라진다. 한 가게가 사라지면 한 가정의 좌절이다. 그들 역시 우리가 도와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4기 인턴과 재능기부 봉사분야에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미소희망봉사단에 지원하고 싶은 경우, 새로 개편된 미소희망봉사단 홈페이지(www.smilevolunteer.or.kr)에서 봉사단 가입 후 봉사신청을 하거나 미소희망봉사단 사무국으로 직접 전화해서 봉사신청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행사가 있거나 미소금융 지원, 수혜자의 요청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정기적인 컨설팅 봉사활동을 원할 경우엔 대학생 컨설팅 연합 동아리 ‘SoME(Society of Microfinance for Everyone)’에 가입하여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지속적 컨설팅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공미희 기자 kong@hansung.ac.kr

■ 환경에세이

4대강사업, 복원은 필수조건이다.

예초에 4대강사업을 시행하면서 내세웠던 목표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통한 수생태회복, 레저산업 활성화 등 다섯 가지였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34만개 창출, 3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4대강 유역 수질 2등급 80% 확보를 내세웠다.

시작은 장밋빛 희망이었지만 결과는 참혹하다. 일자리 34만개 창출은 고사하고, 최소 2000여개의 일자리와 비정규직을 포함하더라도 3만여명이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의 보고서가 나와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부 대기업들의 몰아주기와 나뉘먹기로 지역경제 보다는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이 4대강사업 이후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홍수예방을 위해 16개 댐(보)을 건설했지만, 4대강에 건설된 16개의 댐은 고차 2년이란 초단기, 초납뽀 공사로 진행된 탓에 구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하천 바닥은 모래가 흘러나가 댐 본체가 가라앉고, 이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있다. 홍수방어를 위한 대규모 준설공사도 미흡해, 오히려 지류의 모래가 하류로부터 상류를 향해 흘러나가는 역행침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질은 어떨까. 4대강 2등급 80%를 목표로 세웠지만, 4대강사업 이전에도 2등급의 수질은 70%이상이었고, 2등급 이하의 수질은 낙동강 일부와 영산강 광주시역을 지나고 나서부터였다. 전 4대강에 수질 2등급이란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낙동강에 건설되는 영주댐은 1억 1천만톤의 물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물의 쓰임은 90%가 낙동강 수질개선에이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준설작업은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에 기대어 살던 흰수마자과 모래무지 등 수리강에서 살던 한반도 고유종은 멸종위기에 처했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수달은 강에서 살지 못하고 인근 양어장을 배회하고 있고, 고니(백조)와 두루미 같은 새들의 개체수는 4대강사업 후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 준설로 새들의 습터인 습지와 여울이 사라졌고, 물고기와 벌레 등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 4대강사업 초기부터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 매도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이 안전해졌다는 말과 달리 4대강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댐에서는 물이 새고, 균열이 발생해 4대강 사업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일으켰다. 집중호우 시, 댐의 균열로 인해 붕괴가 된다면 하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4대강사업은 기존 하천체계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4대강사업이 완성되면 최소 50조에서 60조의 비용이 든다. 취수장 이전과 신규설치, 기존 하천원단 구조물(교량 등)의 안전성 진단 등 필요하다. 4대강 유지관리비로만 연간 1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4대강사업 이전에 4대강 유지관리비는 수십 억원이 들었다. 인위적으로 4대강에 개입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4대강사업으로 예산의 불확실성이 발생했고, 4대강사업 이후에도 예산의 불확실성은 일어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농지 리모델링으로 얻어진 농경지로 인해 채소값 급등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강은 강답게, 물은 물답게 흐를 수 있는 길은 4대강의 복원이다. 복원을 통해 강에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돌아오는 도래를 통해 수질개선과 물고기들의 복귀, 두루미와 고니를 다시 볼 수 있다. 4대강 16개 댐 철거를 통한 복원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쓰여야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나혜란 환경운동연합 간사

셈들과 함께하는 생각바퀴보기 - 레이디가가 공연, 청소년 관람불가에 대한 판정 적절하였는가?

찬성 입장

나는 레이디가가 공연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에 대해서 그것을 찬성하는 특정 종교 단체의 주장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만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또는 학원에서 보낸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은 무시되고 중요한 것, 시험에 나올 것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받는다. 즉, 어떤 사람,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소년 관람불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공연 퍼포먼스의 이면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심오한 뜻이 있다고 말한다. 나도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레이디가

의 공연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레이디가가 고기를 온 몸에 두른 것을 보고 '여자들이여 단지 살아있는 고기가 되지 말자'라는 뜻을 알아낼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오히려 그녀가 하는 퍼포먼스의 뜻보다는 자극성, 선정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받아들일 것이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청소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레이디가가 공연의 청소년 관람불가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보수적이고 진부한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꼭 다른 국가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사회에 레이디가가의 공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녀의 공연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그녀의 공연이 가져올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민감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에서 어려울 것인가?

양준(한국어문 2) 동아리 셈들 회원

반대 입장

지난 4월 27일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가가 한국에서 콘서트를 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기독교 단체들은 레이디가가의 노래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점과 퍼포먼스의 선정성 등의 이유로 공연 반대 시위를 벌였다. 기독교 단체가 문제 삼은 노래는 'Bom This Way'라는 노래로 '있는 그대로 태어난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해져'라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다.

코에 걸린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기독교 단체들은 이 노래를 동성애를 조장하는 노래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동성애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배척하려는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과 달리 외국 기독교단체들의 경우 동성애자의 성취입명이나 동성애 부부의 결혼식 때 주례를 서기도 하면서 이미 동성애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기독교 단체들의 시위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영향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009년 내한당시 만 12세 이상 관람가능이었던 등급을 만 18세 이상 관람가능 등급으로 올려 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콘서트에 나오는 '저

스트 댄스'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문제가 된 가사는 '나 오늘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마실 술이 없잖아' 등이다. '술' '담배' 등 특정 단어가 포함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조장한다 것이 그 이유이다.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많은 한국 대중가요들이 청소년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청소년들이 단지 콘서트와 노래에 단순히 그 같은 가사가 나왔다고 무뎠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함께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만들길 원하는 가수들에게 이 같은 처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레이디가가 콘서트도 실효성 없는 여성가족부 정책의 희생양이다.

기독교 단체와 여성가족부의 태도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새로운 예술의 시도를 인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보다 나은 앞날은 없고 문화적 퇴보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백준석(한국어문 2) 동아리 셈들 회원



2012 하계 한성영어캠프 안내

기간	2012년 하계 한성영어캠프 강좌	
6/27(수) ~ 7/10(화) (2주, 토요일 제외 총 30시간)	TOEIC 특강 (LC & RC) 총 30시간 (하루 3시간 X 10일) 유명 토익 전문 강사	오전 10:00 - 오후 01:00
	영어 회화 집중 훈련 총 30시간 (하루 3시간 X 10일) 본교 외국인 교수	오후 02:00 - 오후 05:00
	TOEIC SPEAKING 총 30시간 (하루 3시간 X 10일) 본교 외국인 교수	
비고: 영어회화와 TOEIC SPEAKING은 수업시간 중복으로 동시 신청 불가.		

- 대상 : 본교 재학생
- 교육비 : 강좌당 5만원(출석률 80% 이상일시 예치금 전액 환불)
- 신청 기간 : 5월 21일(월) ~ 5월 30일(수) 17:00 까지(10일)
- 접수 방법 : 캠프 참가 신청서(www.hansung.ac.kr/~ecprogram)를 작성해서 교양영어실(진리관 306호)로 방문 접수
- 예치금 납입방법 : 6월 8일(금) 까지 접수 후 안내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 신청서 제출은 교양영어실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하며, 예치금 입금 즉시 신청 완료됩니다.
- 반편성 고사 : 효과적 학습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반편성 고사를 실시합니다. (장소 추후 공지 / 시험 미응시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편성 고사를 응시 못하는 학생의 경우, 토익성적 증명서 또는 교내 모의 토익 결과 점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세요.)

- 일시 : 2012년 6월 21일(목) 오후 02:00-04:00 모의 TOEIC 시험 (OMR용 사인펜 지참)
2012년 6월 22일(금) 오후 02:00-03:00 외국인 면접
- 기타 문의 사항은 교양영어실 (760-5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접수를 서두르세요!

체형교정으로 누리는 다이어트 효과

몸의 균형을 맞추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 볼 수 있어

누구나 한번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거나, 실천에 옮겨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며칠 못가서 다이어트를 포기한 경험도 많을 것이다.

식습관 및 생활습관이 변화하면서 꾸준히 비만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비만과 다이어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비만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체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모의 변화를 가져와 몸의 아름다움을 저해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예전에는 여성들만 다이어트를 했다면, 요즘은 시대가 변해 남성은 조금씩 복근을, 여성은 아름다운 S라인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취향과 성향에 따라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 원푸드(One-Food) 다이어트, 유산소 운동, 핫 요가 등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다이어트가 종료된 후 다시 요요현상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권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체형교정 다이어트는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 체형을 교정해줄 뿐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까지 볼 수 있어 요즘 뜨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이다.

잘못된 체형을 한방의학으로 잡아주는 전문가 정원석(경희의료원 한의학박사) 교수는 "사람이 보통 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우,



보통은 2차 성징과 관련된 부위에 살이 찌기 시작한다. 보통 허벅지 안쪽, 가슴, 아랫배와 같은 부분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그는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잘못된 자세와 운동 부족을 들 수 있다"며 "이런 경우의 비만은 흔히 8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체형교정 다이어트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는 '코어근육'이 있다. 코어근육은 몸을 지탱해주는 복왕근, 복직근, 척추 기립근과 배와, 등, 허리, 배에 존재한다. 이는 보통 팔발 기저부에 해당하는 근육과 허리근육을 말하는 데, 크게 걸 근육과 속 근육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손으로 쉽게 만질 수 있는 복부근

육과 허리근육은 걸 근육에 해당되고, 손으로 쉽게 만질 수 없는 복부 안쪽근육과 허리 안쪽근육 그리고 골반 안쪽 기저부 근육은 속 근육에 해당된다. 속 층에 있는 근육들은 골반과 척추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골반과 척추의 안정성과 밸런스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 교수는 "체형이 불균형한 사람들의 척추 좌우 균형을 맞춰주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체형을 분석해 비만의 원인을 찾아준다"며 근육부족, 관절약화, 허리디스크 등을 체형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체형교정 다이어트로 효과를 보았다는 A

씨여, 25)는 "나는 요즘 '추나요법'을 받고 있다. 최근 골반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을 찾았다가 골반이 틀어진 사실을 알고 우연히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치료를 받다보니 전보다 옆구리살과 허벅지살도 빠진 것 같고 몸매도 좋아진 것 같다."며 교정을 받게 된 계기와 효과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체형교정을 받으면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교정을 받은 후 걸음걸이가 바뀌었고, 골반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힐 대신 쿠션있는 운동화를 신기 시작했다. 의사의 권유로 크로스백 대신 척추와 허리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백팩을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변화"라며 체형교정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덧붙여 "짜다리를 짚고 서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면 습관도 의식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계기를 통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원석 교수는 "체형교정 다이어트의 경우,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신체 곳곳에 자리잡아있던 살들의 위치를 바로 잡아준다. 때문에 몸매에 변화가 생겨 체중이 감소한 것처럼 느낀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치료를 받으며 하루에 1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겸하면, 좌우 균형이 맞춰지고 체지방이 감소한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 보다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당히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현석 기자 103311@hansung.ac.kr

여인천하

기생과 천민의 러브스토리

조선의 예인들 ③ 이매창

기생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황진이와는 알려진 시가 그리 많지 않다. 그에 비해 부안 기생 이매창(1573~1610)은 『매창집』을 통해 50여수의 시가 전해진다. 1573년 계유년에 태어나 '계생' 혹은 '계랑'이라 불렀고, 매화나무 창가라는 뜻의 '매창'은 그녀 스스로 지은 호이다.

매창은 당대에도 이름난 기생으로, 많은 문인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부안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끼를 발휘하고 인정 받기에는 뭔가 부족했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1590년 즈음에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서울에서 『풍월향도』라는 평민들의 시회를 만들어 활동했던 유희경(1545~1636)이 부안을 찾은 것이다. 천인 출신 유희경은 상례에 밝아 국상이나 사대부의 상갓집에 불러 다녔다. 유희경은 신분이 낮았지만 상례 전문가였기에 양반들에게 존중받았다. 제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서로의 신분과 처지가 비슷해서였는지 유희경과 매창은 만나자마자 30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초월하여 사랑에 빠졌다.

유희경의 증손이 간행한 『촌은집』에는 "그는 그때까지 기생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계생을 만나자 비로소 파계하였다. 서로 풍류를 즐겼는데, 계생도 또한 시를 잘 지어 『매창집』을 간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희경의 시에서는 "남국의 계랑 이름 일찍이 알려져서 글재주 노래솜씨 서울까지 울려퍼라. 오늘에야 참모습을 대하고 보니 선녀가 펼쳐입고 내려온 듯 하여라."하며 매창을 칭송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유희경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헤어졌다. 왜란이 터지면서 유희경은 의

병활동을 하고 매창 역시 전란을 피해 근근이 살았다. 서로 헤어진지 10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하였다. 매창의 시에서는 그에 대한 그리움이 짙짙히 묻어난다. 1607년 17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난 듯한데, 그 만남도 오래가지 못했다. 조선시대 기생은 관에 속한 관기로서 신분이 자유롭지 못했다. 양반도 아닌 유희경이 매창을 소실로 맞을 수도 없는 처지였기에,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짧게 끝나고 말았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도 매창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었지만 이미 정인이 있는 매창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가질 못했다.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정신적인 친구로 자랐다. 1610년 여름, 허균은 매창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시를 남긴다. "아름다운 글귀는 비단을 찢는 듯하고 맑은 노래는 구름도 멈추게 하네. 복숭아를 훔쳐서 인간세계로 내려오더니 불사약을 훔쳐서 인간무리를 두고 떠났네." 허균은 당시 양반사회를 비판하며 서얼이나 평민들과 어울리는 등 시대의 반항아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여적으로 몰려 능지처참되고 만다. 매창이 있는 부안에서 은거하며 살고자 했으나 그 꿈도 이루지 못하였다. 사랑도 마음껏 할 수 없었던 부자유한 시대의 안타까운 연인들의 이야기다.

매창의 시는 그녀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마침내 1668년 부안현 아전들이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시 58편을 모아 『매창집』을 엮었다.

이화우(梨花雨) 출판될 때 제목 잡고 이별한 님/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누나.

최선경(문태유신론연구소 기획자)

서평-파워블로거의 지식충전, 감성충전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네 이야기를 해도 좋아



이소중 필명 '앨리스'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alisso.blog.me)

한국문학은 재미없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교과서에서 만난 것이 내가 아는 한국문학의 전부이던 시절, 살아보지 않은 우울한 시대상만 보여주며 분석하게 하는 한국문학이 재미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김연수'라는 작가를 알게 된 후 한국문학에 대한 내 열망이 시작되었다. 눈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김연수/문학동네

을 감으면 밀려오는 어둠이 내 미래 같이 느껴지면 20살 초반, 그의 단편 『스무살』 속 한 문장인 '스무 살이 지나가고 나면, 스물한 살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스무 살 이후가 온다'는 말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 너의 삶을 살라고 속삭이는 듯 한 그의 말에 위안 받으며 나는 그의 팬이 되었다.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이 세상을 나온 이후,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책을 떠올리게 된다. 머리 울리버의 <기러기>라는 시의 한 구절에서 제목을 따온 이 책은 그 시에서도 말하고 있듯 우리에게 우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작가가 그의 다른 책 『형준의 문장들』에서 '키친 테이블 노블'이라 표현했듯, 작가는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책에서 우울한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인물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자신만

의 이야기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속시켰다.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여러 삶과 부딪히게 되고 때론 별들의 통섭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단 하나이기애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해질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이다.

이 책을 읽었던 때 순간들은 내 안의 이야기들이 가장 커졌던 순간들이었다. 시간의 참나들은 때론 오지 않아도 좋을 우연들을 내 앞에 던져놓았고 그 시간을 건지며 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죽지 않을 힘을 다해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시간 속을 건지며 쌓인 이야기들이 서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이 책을 읽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던 이 세계가 이야기로 기록 차 있고 그래서 난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테니까.

경제문제, 원인과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자

『문제는 경제다』/선대인/웅진지식하우스



윤종현 필명 '꽃다지'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myplanup)

2022년 3월, 등록금 부담없이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김보람 씨처럼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참 좋겠다. 내 아이와 후배들을 위해서다.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행복해져야 한다.

선대인의 신간 『문제는 경제다』(웅진지식

하우스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없는 문제를 파헤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

국민 대다수의 삶이 여유롭지 못한 세상이다. 객관적이라 입을 모아 말하는 각종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지수와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요즘 20대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 신입생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지만 졸업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

저자는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데서 원인을 찾는다.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이 낡은 결과이다. 그는 이를 1부에서 10가지 위기 요인으로 명쾌하게 정리하여 문제를 진단한다. 그리고 2부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었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예측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권력을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역사상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경제주체를 바꾸으로써 상생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스템을 개혁하여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마인드의 변화도 필요하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씩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명쾌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현 시대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사회구조의 일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고용과 실업, 가계부채, 세계 경제위기 등을 광범위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보다 넓은 안목으로 경제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재학생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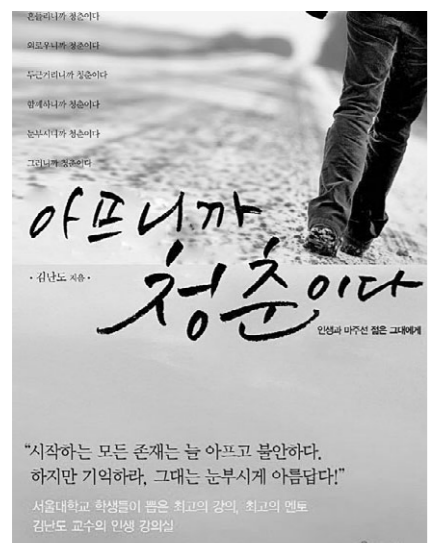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입니다. 2012년 재학생 온라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래 링크된 동영상은 다운받아 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예방동영상 - '성매매없는 밝은 사회 만들기' (링크주소 : http://www.moge.go.kr/files/directDownload/v20111207.wmv)

또는, 양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www.hansunggender.org) → 게시판 → 공지사항에 해당 동영상의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 : 2012년 5월 14일(월)~ 2012년 6월 13일(수)
자세한 문의 : 양성평등상담소 (02-760-5813 / www.hansunggender.org)



대중의 마음을 이끄는 감성적인 소통수단, 캘리그래피

인간미 있고 온정이 느껴지는 손글씨로 감성을 전달해

‘아름답다’ 뜻의 그리스어 ‘칼라스’와 필체라는 뜻의 ‘그라피’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캘리그래피’는 전문적인 손글씨를 뜻한다. 즉, 손으로 글을 씌어서서 우연성이 중시된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자체를 말한다.

국내 캘리그래피의 역사는 이제 10년 남짓에 불과하다. 이상현·김종진 등 원광대 서예학과 출신 캘리그래피 작가들이 1999년 캘리그래피 전문업체 ‘필묵(筆墨)’을 설립하면서 캘리그래피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됐다.

캘리그래피는 유연하고 동적인 선, 글자 자체의 번짐 붓에 먹물을 슬쩍 스친 듯이 묻혀서 그리는 갈필효과, 균형미 등 많은 매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옥외광고, 드라마 타이틀, 티셔츠 프린팅, 패키지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캘리그래피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0여년에 불과하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캘리그래피는 홍보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통 캘리그래피를 쓸 때 편의상 캘리그래피 전용 펜이나 붓펜 등으로 작업을 하지만 자유로운 표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그래피 도구에 대한 제약은 거의 없다.

이정환 캘리존 팀장은 “캘리그래피는 도구에 구애받지 않는다. 동물의 털, 자연의 풀을 가공해 만든 붓, 칩, 칫솔, 수세미 등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씨를 표현할 수 있는 어느 것이든 캘리그래피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캘리그래피는 제품의 특성을 잘 전달해주며 대중들의 시선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홍보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포장을 캘리그래피로 디자인한 참이슬과 처음처럼, 캘리그래피가 쓰인 영화포스터나 드라마 타이틀, 간판이나 가수의 앨범 자켓, 포장지 디자인, 쇼핑백 디자인, 라벨 디자인 등 홍보수단으로써 캘리그래피의 가치는 높아져가고 있다.



이와 같이 캘리그래피가 인기를 끄는 현상에 대해 이팀장은 “캘리그래피는 온정이 느껴지는 필기체이다. ‘손 글씨’라는 인간미 묻어나는 도구를 통해 제품만의 특성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딱딱한 기계 폰트와는 달리 감성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문석 캘리그래피는 “폰트처럼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글씨체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강함과 약함을 잘 그려 낼 수 있다.

또한 캘리그래피로 쓴 글씨는 글씨 안에 이야기가 묻어있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효과적이다.”며 캘리그래피가 가진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인사동 공예품전문매장 ‘잠지길’에 있는 캘리그래

피 매장에서 만난 권태훈(21)씨는 “캘리그래피로 된 머그컵을 구입했다. 아기자기한 글씨체, 힘 있는 글씨체, 부드러운 글씨체 등 ‘글씨’로만 꾸밈음에도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캘리그래피로 디자인 한 제품들은 신선한 느낌을 준다.”고 전했다.

지난 여름, 캘리그래피 동아리터를 맞춘 김다은(22)씨는 캘리그래피에 대해 “기계 폰트체 보단 손으로 한글자 한글자씩 썼다는 점에서 정성이 들어가 있다. 세심한 손글씨로 우리 동아리만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어 좋았다. 우리 동아리의 개성이 잘 표현된 동아리터를 입고 체육대회를 열었더니, 사람들 간 단합이 한결 더 수월했던 것 같다.”며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오문석 캘리그래피는 캘리그래피가 일상적인 물건 디자인에 쓰이는 것에 대해 “시중에 분포된 많은 물건들에 캘리그래피가 쓰였지만, 일반사람들은 캘리그래피가 쓰인 걸 잘 인식 못한다. 캘리그래피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매체에 노출됨으로써 대중들이 하나의 디자인기법으로 인식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캘리그래피의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다.

김현범 기자 jounkim@hansung.ac.kr



공간사용설명서

순환적 공간 속 순응적 삶 - 도심농장 ‘내부순환텃밭’ -



햇빛 마루 위 오밀조밀 붉게 물든 카펫이 깔려있다. 카펫에 아로 새겨진 진녹색 점들 사이사이로 검정색 실들이 교차하고 그 위로 작은 점들이 움직인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병풍도 이 순간만큼은 그 삭막함이 덜해 보인다. 개운한 정성에서 바라본 녹음의 계절 속 서울의 풍경은 전에 없이 정감 간다. 그러나 그 넉넉한 풍경을 뒤로한 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둘러쳐진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얼마지나지않아 그 낭만적 도시풍경의 잔상은 그 속의 무미건조함에 다시금 묻혀버리고 만다. 자문해 본다. “그 순간 무엇이 그토록 풍요로운 도시풍경을 만들 냈던 것일까?”

성북예술창작센터의 4층 옥상에 들어서면 우선 내부순환도로를 마주하게 된다. 건물과 고가도로의 높이 그리고 두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건물의 처마와 도로면을 수평에 위치시키며 또한 일치점을 만들어 낸다. 불협화음 가득한 날다란 이 공간은 한 예술가와 동네 주민들에 의해 농장으로 변모 중이다. 이들은 현재 채소를 기르기 위한 이동식 텃밭 상자 제작에 열중 하고 있다.

이 이동식 상자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불규칙한 변화에 적응하여 도시 각각 그 위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한다. 그 옆으로 넝쿨식물을 활용한 그늘막이 들어 설 것이고 막 밑으로는 넉넉한 크기의 평상이 놓일 것이라 한다. 이제로운 것은 그늘막과 더불어 허브 경작을 하고, 경작된 허브를 이용해 즉석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다용도 화분-테이블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곳을 먹거리 생산만이 아닌 동네 주민들이 모여 여유롭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다용도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

경작에 필요한 용수로 쓰일 빗물을 모아 내려 보내기 위한 수로를 통해 이어질 각각의 텃밭 구조는 ‘도시의 혈관’ 역할을 한다. 또한 원거리의 공간을 잇는 내부순환도로의 도시 내 기능성을 차용하여 ‘자연적 순환’을 추구하는 공간구성의 지향점이 반영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모서리에 설치될 지렁이 집, 빗물 저금통 그리고 자기발전 거름 건조기 등은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이 ‘순환적’ 구조물에 더해져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 도시의 인공적 환경이 우리 주거문화에 미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중 절대 농지 공간의 부족과 생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은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불안 등 섭생에 관한 문제인식과 해결점은 최근 이 같은 도심농원을 통해 발견되고 있다. 더불어 이곳 ‘내부순환텃밭’에서는 예술과 생활, 도시와 농지, 문화와 자연, 노동과 놀이 등 상충될 수 있는 개념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 그 시작이 되는 공간 구성에서 경작까지,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교육자들이 머리를 한데 모아 그동안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며 만들어 왔던 도시 주거환경을 조심스레 변화 시키려 한다.

개운산에서 바라 본 새삼 풍요로웠던 도시 풍경은 어쩌면 이 같은 작은 노력들이 모여 늘어나는 진녹색 점들로부터 시작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진이야기



위 사진은 작년 우리학교 축제 때 열린 교내 클럽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성 대동제를 신나게 즐기 있는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올해 축제는 5월 23, 24, 25일, 3일간 열리니, 얼마 남지 않았네요.

김동수(행정 2)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개원 기념 학부

외국인 유학생 글쓰기 공모전

“당신의 학교생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입니다.
이번에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개원 기념 학부 외국인 유학생 글쓰기 공모전을 진행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학부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한성대학교 학부 유학생(1학년~4학년)
- 주제 : 1. 한성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일(수필형식)
2. 감사했던 교수님께 쓰는 편지 형식
- 주제 1, 2 중 택일
- 형식 및 분량 : 글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되며 감사했던 교수님께 쓰는 편지의 경우 교수명과 과목명 반드시 기재, 모든 소재는 한성대학교와 관련이 있어야 함.
- 표지 : 제목, 이름, 학번 기재
- 내용 : A4 1매~2매, 글 간격 160%, 크기 11Point
- 제출기간 : 2012. 05. 07 ~ 2012. 06. 01
- 제출장소 : 한성대 우촌관 3층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학부유학생창구
- 발표 : 2012. 06. 11(한성대 홈페이지 및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공고)
- 시상 : 2012. 06. 22(수상자 및 2011년 후기 학위수여자 필참)
 - ◆ 최우수상 : 1명 - 문화상품권 10만원
 - ◆ 우수상 : 1명 - 문화상품권 8만원
 - ◆ 장려상 : 1명 - 문화상품권 5만원
 - ◆ 가작 : 10명 - 문화상품권 1만원 (수상은 참여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02)760-5596

한성대학교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교단에서



박선옥 교수 (연어교육원)

문화 통합 그리고 역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외국인을 자주 볼 수 있다. 꼭 관광지가 아니어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외국인을 보기도 한다. 우리 한성대학교에도 학부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이 무역학과 30명, 경영학과 26명,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과 14명, 의생활학부 13명, 한국어문학부 12명 등 16개 학과에 모두 138명(입학처 자료, 2012.4.1)이 재학하고 있다. 전체 재학생 7,376명 대비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1.87%이다. 이정도 수치라면 대부분의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외국인 학생과 같은 강좌를 수강하며 함께 수학하는 경험을 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에서 학문 수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유학생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외국인이 있다. 관광과 같은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경우, 비교적 긴 시간동안 근무 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이 결혼하여 이민한 결혼이민자 등이 있다.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이 1년에 20만~30만씩 늘어나서, 불과 몇 년 전 100만 명이었던 체류외국인이 2012년 140만을 넘었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

라고 부르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 간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게 될 경우 자신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바랐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은 '동화' 중심의 정책이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같은 여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는 너무나 할 것 없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체험 기회 제공, 한국 사회 정착 지원, 다문화 일자리 창출, 출산과 육아 서비스 제공, 자녀교육 정보 제공 및 다문화학부모 역량 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이뿐만 조금씩 바꾸어 중복 서비스를 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이민자가 우리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그르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은 이민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감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문화

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중복 서비스는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담당 영역을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이 되도록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소수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현상이 되고 말았다.

최근 들어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인구는 매년 약 22만 명이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연평균 약 6천 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하는 10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다문화학생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2012. 3. 12)을 발표하였다. 그 슬로건은 '다름을 재능으

로,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및 다문화코디네이터 운영, 한국어교육과정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 도입 및 기초학력 책임 지도 강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 교육 강화,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지도 강화,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일반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다문화자녀를 위한 정책이 한국 중심의 문화적 동화를 지향하거나 지원이 과하여 한국인 가정 자녀를 역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을 '다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함께'라고 인식하고, 각자의 문화적 정체감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한 쪽을 위하다가 다른 한 쪽을 역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다문화정책을 펼쳐야 한다.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한성대신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면에 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내용인든 신문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문사로 보내주세요.

- 소재 예시
 -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것
 - OO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우리 동아리를 자랑합니다!'
 - '나는 고백한다, OOO를...'
 - 한성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영화, 여행지 등

-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4~5매 (A4용지 절반 정도)
- 투고대상 : 한성대신문을 읽는 교내 모든 구성원
- 혜택 : 신문에 독자투고가 실린 분께 소정의 원고료 제공
- 투고방법 : 이메일 (press@hansung.ac.kr)

•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 02) 760-4186

한성대신문사

한 줄 댓글

여름에 먹고싶은 음식과 그 이유는?

이번 '한 줄 댓글' 주제는 '여름에 먹고싶은 음식과 그 이유는?'입니다. 무더운 여름, 지친 몸을 달래주고 갈증을 해소해 줄 만한 음식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이수진(영문4) : 여름 아니면 못 먹는 수박하채, 얼음동동 수박하채 한수저면 여름더위 물러 가라.

임진영(지정1) : 물냉면. 시원한 육수와 졸깃한 면발은 더위를 물러나게 만들어 주니까

권운아(영문2) : 팥수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니까~~!!ㅋㅋ

박진숙(영명4) : 콩국수. 정말 여름에만 판다

최승희(외과2) : 빙수. 토핑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ㅋㅋ

홍이름(회화3) : 여름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과일빙수죠~~급게 갈린 얼음위에 달달한 팥과 알록달록 빛깔을 자랑하는 과일을 곁들여서 먹으면 더위는 한방에 물러가죠~ 빙수의 계절이 다가왔네 요 신난다!

남지은(지정2) : 전 여름만 되면 뜨거운

삼계탕이 먹고 싶어요 ㅋㅋ이열치열! 땀속 빼면 너무 시원해요 ㅋㅋ

소혜정(지정4) : 여름에 먹고 싶은 음식은 수박이요!! 깎둑썰기 해서 락엔락에 넣어놓고 먹으면 완전 좋다는ㅋㅋㅋ

한재원(행정1) : 맥주! 후덥지근한 여름 밤에 자전거 도로 따라 걸으면서 뽕 냄새 맡으면서 마시는 맥주가 짱!

박천수(국문2) : 수박한통사서 그냥 반으로 쪼개서 얼음 동동 띄우고 화채 만들어서 후르륵 하면 머리까지 시원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 맛은 여름에만 느낄 수 있다!!!!

유지웅(기계3) : 물냉면이요! 시원한 국물이 좋아요

임진석(기계3) : 냉면이죠. 이사 간 낙산냉면 먹고싶네요~

안진영(경체 4) : 팥빙수요! 달달한 팥에 시원한 얼음, 여기에 쫄쫄한 떡과 고소한

미숫가루가 뿌려져 있는 팥빙수야 말고 여름의 별미지요

장예진(외과4) :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손승희(지정4) : 얼려먹는 풀피소요^^ 햇빛 쨍쨍한 하교길에 친구들과 얼린 클 피소를 수저로 퍼먹던 초등학생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이유나(영문3) : 여름엔 뭐니뭐니해도 팥빙수~~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이번호 당첨자는 손승희(지정 4), 권운아(영문2), 박진숙(국문 2) 학생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문화상품권을 받아가세요.

수습기자 일지

나는 2G, 폴더 폰 사용자다. 기종은 '플리 팟 2'. 구입 할 당시만 해도 나를 최신 폰이었다. 그 후 2년이 지나, 거의 모든 이들이 스마트폰을 쓰며 '카카오톡이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폴더 폰은 골동품 취급을 받고 있는 오늘날, 난 별로 불편한 점이 없는데 오히려 남들이 '스마트폰 안 쓰고 어떻게 살아 가냐'며 걱정해준다.

생각해보니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는 듯하다. 예를 들자면 '카톡'으로 진행되는 조별회의, '카톡'으로만 보내지는 교수님들의 공지 등등... 의사소통 면에서 상당히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 불과 2년이란 시간 만에 이렇게 급변하고 되는건가? 이 같은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오직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15년 전 가입자 수가 무려 1천 5백만 명이 되었다면 '빠메'는 수신, 발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1G가 나올으로써 소외됐다. 번거롭게 통화하기보다 간단히 문자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2G가 나오자 1G는 소외 됐다. 그리고 '카톡'이라는 혁신적인 앱으로 대화를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3G가 나오으로써 2G는 소외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경향을 보자면

언젠간 4G에 의해 3G 또한 소외될듯하다. 불과 20여년 사이, 빠메에서 스마트폰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한 이동통신기기의 변신은 몇 번 보자보면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은 전반적인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느껴진다. 경제적 침체기를 거쳐 호황기를 맞아 발전해 나가는 지금, 휴대폰뿐 아니라 생활수준, 의식수준, 가치관 등 전반적인 상황이 20년 전과 사뭇 다르고 매순간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에선 어느 것도 확립되어 있지 않기에 온갖 사상과 가치관들이 혼재하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사회의 보편적인 판단(사회)의 보편적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이 부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가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뚜렷한 신념과 올바른 가치관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을 마주쳐더라도 뛰어난 통찰력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해나가며, 매순간 급변하는 사회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김현범 기자 journal@hansung.ac.kr

나는 무엇을 꿈을 꾸는가?

나는 3학년 내 나이 25살 나는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한다. 전부터 어떠한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로 옮긴건 몇 없었고, 어떠한 것을 해야할지 몰라서 포기한 것도 몇 있었다. 대학에 입학해 처음 1년은 재미있게 놀았다.

1년이 지나고 군에 입대했을 때 편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군에서 행정병을 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군 제대 후 1년 더 다니고 편입을 준비해서 한성대학교에 입학했다. 1년, 2년 지나다 보니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고, 약한 모습이 아닌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한성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나는 '전공을 살려야하냐? 아니면 다른길로 가야하냐?'라는 고민에 빠졌다. 물론 지금도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들은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도 많다. 나처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이가 그렇지는 않다.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이들은 소수이고, 현실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뭘 어떻게든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잘나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 적어도 고 학년이라면, 자신의 처지가 정말 나쁘지 않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정신을 강화시키고 남들의 시선과 언행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게 된다.

20대 만큼은 도전과 성공 및 실패도 많이 해봐야 한다. 누구나 항상 성공하기는 어렵고, 실패도 매번 하기는 어렵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비기는 뒤에는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지 않았나? 20대라는 젊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당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20대가 되었으면 한다.

김현범 기자 103311@hansung.ac.kr

|사설| 존재감 찾기 열풍

통신과 관련된 수많은 기술이 개발되지만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들은 소수다. 최근에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각광을 받고 있다. 성공하는 통신 기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는 요인은 무엇일까? 여러 요인들이 후보군에 오르지만 필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존재감'이다. 사전에는 '사물, 사물, 느낌 따위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이라고 되어 있다.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현대인을 SNS에 몰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문자나 식 폭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범행의 동기를 조사해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마치 자신을 보이지 않는 공기인 것처럼 여겨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자괴감과 분노가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것이다.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번 극단적인 범죄자만이 아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는 것이 자신의 빈약한 존재감이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무시당한다거나 존재감이 약하다는 고민과 관련된 것들이다. 오죽하면 '존재감 없는 무존재파'와 같은 인터넷 카페가 생겨나고 있을까?

존재감의 부재로 인한 불만은 앞서 이야기 한 문자나 식 범죄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에도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흔하고 사회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의 양산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히키코모리'라고 해 별개 사회문제시 하고 있다. 일체의 사

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산다는 점에서 '오타쿠'와 비슷하지만 수동적인 오타쿠와 달리 더 폭력적이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저질스럽고 악의적인 댓글의 주범들로 지목되는 것이 이들이다.

은둔형 외톨이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직장 등 기존의 조직들이 구성원들에게 더 강하고 확실한 소속감을 주는 방법이 최선이다. 과거에는 이런 조직들이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소속감을 주었다. 하지만 구성원 간의 경쟁 심화, 업무의 전산화, 평생직장개념의 희석 등과 같이, 달라진 조직문화 속에서 존재감과 관련된 모든 집합 조직에 지우기는 힘든 상황이다.

개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대목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둔형 외톨이 혹은 존재감과 관련된 인문학을 학습하는 것이다. 예전 대 존재감의 약화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는 점을 깨닫는 것 하나만으로도 은둔형 외톨이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치유 능력이 남아 있어 자신의 단계를 깨닫는 순간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1학기가 끝나면 곧 취업시즌이 다가온다. 취업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힐찬 제자들의 발걸음만큼 흐뭇하고 즐거운 광경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직장이 줄 수 있는 항목들 가운데 소속감은 과거와 같이 강한 것이 아니다. 동료들과의 강한 연대감 역시 심화된 경쟁 때문에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기댈 것은 그대들의 강한 자의식과 자신감뿐이다. 건투를 빈다.

가로세로

①				②		③	
			④				
③							
						⑤	
⑥	⑤			⑥			
						⑨	⑦
⑦	④			⑧			
							⑩

- 가로
 - ① 사법 기관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최고의 국가 기관
 - ② 체형을 교정하는 것
 - ③ 등에서 흔히 지러며 높이가 10cm 내외인 식물
 - ④ 입고 있는 옷 이외에 여유가 있는 남은 옷
 - ⑤ 왕건이 신라말에 분열된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여 세운 왕조
 - ⑥ 대학의 신학 협력사업(기술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을 관리, 지원하는 전담조직
 - ⑦ 통행금지와 같은말
 - ⑧ 포로나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 등을 본국으로 도로 돌려보냄
 - ⑨ 서로 주고받은 말이나 의견을 적은 서면
 - ⑩ 4호선의 지하철역
- 세로
 - ① 대학측에서 일컫는 말
 - ②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강에서 아동에게 가르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 ③ 교보생명보험 계열사로 사적 지칭 및 음반, 문구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
 - ④ 금융 기관에서, 예금한 사람에게 출납의 상태를 적어 주는 장부
 - ⑤ 공부하며 학문을 닦는 데에 쓰는 비용
 - ⑥ 단위를 환산하는 것
 - ⑦ 통행신호를 줄여서 부르는 말

정답자에 한해 추천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가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제19회 학술정보관 문화행사

| 저자와의 만남 | 허태균 교수

가끔은 저정신

행운권 추첨
저서 증정

사전 예약자 추첨 후 기념품 증정

착각은 자유다! 그래서 행복하다.

착각을 즐겨라! 그래야 행복하다.

착각을 활용하라! 그럼 더 행복해진다.

- 초청강사 : 허태균 교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저 서 : 「가끔은 제정신 :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산다」
- 강연주제 : 우리는 진실을 원하기는 할까? - 착각의 심리학
- 일 시 : 2012년 5월 31일(목), 오후 3시 ~ 4시 30분
- 장 소 : 미래관 DLC
- 행사진행 : 1부 _ 다독상 시상
: 2부 _ 저자와의 만남 강연 / 저서 증정 및 저자 사인

학술정보관

※ 지역주민도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